

등장인물

장석자

파수꾼 가

파수꾼 나 (노인)

파수꾼 오 (소년)

장석자

(근간들에서 도그와 등장인물들을 설명한다)

0 곳은 좋아합니다. 이런 땅의 내습을 말리는 임무가 세워져 있죠. 드넓은 숲은 이 임무는 하늘로 등락되어 있습니다. 장석자는 내국의 전쟁에 따라 흥분, 초생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자기 몸을 바르르르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시뮬레이션된 보일입니다. 그는 내가 되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바르르르시오 이런 시뮬레이션 유망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물론 알아버치오 해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 오선 저 임무 위의 파수꾼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이지요. 또 다른 파수꾼들 보다는 같은 시그 시그입니다. 그들은 임무 아래에서 알뜰복을 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장석자 오의 파수꾼이 이런 땅을 발견했다 것처럼 그들은 알뜰복을 두드림 겁니다. 그 소린 바르르르시오 포지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염되고 그럼 주민들은 이런 땅의 내습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어딘가가 잘 아시듯이 이런 땅은 무척 교활하죠. 그들의 습격이 만능난 것 같아지면 많은 두로 물러나옵니다. 그리고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러한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석자 오 파수꾼이 갑자기 외친다.

가 이런 땅도. 이런 땅이 이런 땅이 물러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복 물러간다 이런 땅이 나만 명령을 기린다. 임무 아래 파수꾼들은 알뜰복을 두드린다. 알뜰복 복소리 계속 불만이 점점 고조된다. 예석자는 달이난다. 노인파수꾼 나의 복자는 모순은 논쟁한다. 소년 파수꾼 나는 두려움에 걸려서 잊치기만 하다가 건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물러간다.

가 복소리 들지 이런 땅은 물러갔다.

오 (아직도 강에 걸려서) 이런 땅이 구요?

나 걱정 이런 땅은 물러갔다.

오 저는 아무 것도 못하는데요?

나 나는 낮은 곳에 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저 임무 위의 파수꾼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나? 그는 멀리까지 비리한다. 너하곤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아이지.

가 이런 땅도. 이런 땅이 이런 땅이 물러온다!

소년 파수꾼 나는 당황해서 다시 알드리고 파수꾼 나는 알뜰복을 두드린다.

가 복소리 들지 이런 땅은 물러갔다!

오정말 물러갔어요?

나 그렇다 안심하구 일어나렴.

오 그래도 저어 아직 몇 마리 남아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랬다가 영리하게 말려들어 각 목 수도 있겠어요.

나 파수꾼의 눈은 경색하인다. 단 한 마리의 이리도 그 눈을 피해 승을 손 있지.

오 아, 저는 그럴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파수꾼의 눈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리라는 게 그렇죠. 이리를 만어선 안 됩니다. 배웠거든요. 이리는 영공하고 사냥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리면은.....

나 이리가 그렇게도 무섭나?

오 네.

나 그럼 왜 파수꾼이 될 생각은 했지?

오 이렇게까지 우수움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파수꾼이 되는 연습을 할 때엔 이렇게였습니다. 제법 용감했죠. 특히 칭찬을 받는 건 재 놀이였어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도 혁혁 알아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감탄했어요. 「최고의 놀이이다. 너 파수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요, 저는 여기에 오길 지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 상황이 다르군요. 나는 한 번도 임무 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웠는데요. 왜 저 임무 위의 파수꾼은 교대하질 않죠?

나 지금은 알이다. 지금까지 실수를 하지 않았었다. 단 한번도 이리때를 놓친 적이 있었어.

오 괜찮네요.

나 아무런 년 어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나?

오 자신 있어요..... 하지만요, 만두 번점은 실수도 있을 거예요.

나 그럼 큰일난다. 이런 땅의 습격을 능숙하리라. 마을의 기숙과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년 아예 선별리 임무 위에 올라갈 생각도 마라. 여야 저 높은 곳보다 이 아래는 할 일이 많았다. 알뜰복도 쳐야 하구. 여기저기 놓아둔 이리 알들도 살펴야 하구..... 망금 전 습격 때, 지적에서 딱 치이는 소리가 났었다. 너, 나하고 몇 보러 가지 않을래?

오 전 여기 있고 싶어요.

나 이리가 걸렸으면 좋겠는데.....그럼 다녀오마.

파수꾼 나 회장 오랜 전역 다는 임무 위에 쳐다보기도 하고 키발을 들고 사방을 살피기도 한다. 금방 이리가 엄밀 것 같아서 그는 알뜰복을 벗는다. 마침내 두 팔로 얼굴을 감싸고 양에서 물러가지 않는다. 파수꾼 나가 돌아온다. 무신하게 생긴 강철제 알뜰복 어깨에 물러오고 와서 내려놓는다. 나 또, 잊었다. 교활한 짐승도 다 있지. 나뭇가지들 대신 키워놓고 좋은 달아남지 뭐니. 예야, 이 잊혀 함께 버리지.

두 파수꾼은 몇 입을 받게 받린다. 이빨들이 달린 땅이 벌어져서 파수꾼들에게 위협을 준다.

오 무신하게 생각해요.

나 나뭇가지 때문에 이빨이 심했어 날카롭게 쇠붙이 들어갔다.(쇠붙이를 꺼내 몇 이빨을 깬다. 금속성의 둔기 같은 소리가 난다) 가끔 가다 이리가 치어주어 재미있는데 쫓 그레주처럼 믿는다. 치는는기가 보면 또 헛치었구, 이라는 절망 고통해. 용이에 수천 개의 잇몸 놓았지만 용케도 걸려들 쫓 양어.(옆니에 날이 찌는지 영지순가락을 대본다)자, 왔다, 이리야, 이번엔 제발 밀려 걸러디오. 제자리에 가자다 놓구 오야.

나 내일 아침에 가세요

나 내일 아침에?

나 그래요 지금은 어둡잖아요?

나 어둡기는--- 아직 한밤

나 기시면 안 되요 어진 아직 편하지만 잇몸을 얼얼 속은 어두울지 몰라요, 그 속에 이리가 숨어 있다 잠버들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은데 내일 아침까진 꼼짝도 안 하겠어요.

나 넌 잠 견두 얹다.

나 이리 떠다 이리 떠! 이리 떠가 들려온다!

소년 파수꾼 다는 알드리고 노인 파수꾼 나는 양활복을 두드린다.

가 복소리 중지 이리 떠는 들려갔다.

나 넌 도 알드려구나.

나 이리 떠 다 갔어요?

나 양활복이라도 쫓 쳐보렴 그랬니? 네가 어떻게 해주면 나 혼자서 어떻게까진 고달프지 않겠는 데---

나 아, 저는 알모 없는 사랑같아요.

잠시 침묵. 파수꾼 나는 상심하는 소년의 얼굴을 다정하게 어루만진다.

나 그래도 난 네가 좋다.

나 네가 좋아요?

나 응

나 그럼만 나는데우요?

나 그래도 좋은 걸. 난, 너 오기 전엔 씩씩했었다. 위험 보험. 저 양무 위의 파수꾼하고는 거리가 너무 없어 알것도 안 왔다. 그래 난 하루 정일 용로 있는 거나 다름없었지. 양활복도 요란하게 두 돌리고 수천 개의 잇몸 둘러보려 다녔지만 혼자인 건 어쩔 수 없더라. 예야 외롭다는 것 그게 뭔 지 아니?

나 몰라요

나 정었음 면 나도 몰랐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황야에 바람이 불다든가 깊은 밤 달이 떴음 때 외롭더라. 그래서 난 마을 촌장님에게 편지를 내었었지 파수꾼을 한 명 더 보내달라구 했어. 마침 지은지가 있다더구나. 바로 너였다.

나 용감한 사랑이 오려 바라셨죠?

나 아니.

나 저처럼 걱정을 기다리신 거예요?

나 아니.

나 그럼.....

나 누구였음 하고 미리 정해 두지 않았단다. 그랬다가 만약 틀린 사람이라도 오게 되면 난 알기 뻔치 않겠니? 그런데 첫눈에 너를 보자 믿었 기웠다. 그 순간 나는 정한 거란다. 바로 네가 왔으면 하고. 내 뜻은 이루어졌다. 넌 그때 취파함을 불며 왔었지?

나 네.

나 내 귀가 울려더라.

나 고마워요.

나 오히려 고마운 건 나다.

황혼이 점점 짙어진다. 해설자 슬그머니 등장 아련지로 만든 초성열을 하늘에 걸어놓고 되장 두 파수꾼은 어찌를 나란히 하고 앉아 있다.

나 아, 하늘 크다. 그지?

나 네.

나 어찌 저녁 니가 올 때도 이랬다. 난 평생 그 경경을 잊지 못할 거다(잠시 침묵)어떠냐, 너 양 활복 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음래?

나 배우겠어요

나 그러면서도 넌 양무 위만 바라보는구나. 그렇게도 올라가고 싶으니?

나. 고개를 떨군다.

나 양활복 치는 것도 견장은 거란다. 소리가 요란하긴 하지만 귀에 익으면 그 재미를 알게 된다. 자야, 우선 여러 가지 박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마.(그는 강약을 두어 양활복을 두드린다)재미 있지? 이 박사 치기에 맞다면 어서 이리 떠 같은 건 다 잊어버린다. 자 너도 쳐보아라.

나 (나를 따라 양활복을 치다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나의 등 뒤에 앉는다) 저기저기.....

나 왜 그러니?

나 이리가 오구 있어요.

해설자 식량 운반인이 되어 등장. 이리 견장을 썼다. 우모차 비슷한 작은 손수레를 밀며 돌아온 다.

운반인 만병하십니까. 파수꾼님? 양무 위의 파수꾼님도 만병하세요? 제가 왔어요. 저를 좀 보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나 지네 수다 떨긴 여전하군. 어서 짐이나 내려놓게.

운반인 일주일분 식량입니다요. 쌀, 아저, 그리고 마른 생선. 이 숙면 특별요리가 들어 있습니다요. 자 받으실쇼. 이 맛있는 밥새가 나는 상지들(나에게 주며)물자로 구운 닭고기죠. 지난번에 부탁하신 걸 가져 왔어요.

나 고마우이, 정말 고마워(나에게) 안심하고 나와, 식량 운반인이야

나 왜 이리 견장을 썼죠?

운반인 왜 이걸 썼느냐구? 이리가 엄비지 알도록 쓴 거지. 이라는 사람을 몰지만 자기네 중족은 몰지 않거든.(나에게) 아때요, 맛있는 밥새가 나죠?

나 흥, 흥 근사한데!

운반인 물어보시죠, 아서

나 아니 지금 열지 않잖아, 두었다가 멋진 저녁을 치릴거구 그래, 환영할 친구가 왔거든, 저녁에 소개할세, 새로 온 파수관이야, 아주 용감하지, 양철복 치는 습식도 나보다 강할 놈구, 다 이적은.....그렇지 않습니다.

운반인 악수를 청해도 되겠지? 왜 머뭇거리니? 아 내가 쓴 이리 경첩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인데 (머리 부분만 벗어 찢히고)이젠 묘지?

다 (운반인이 내민 손을 잡는다) 인녕하세요?

운반인 반갑수

가 이리 떠다, 이리테이 이리 떼가 물려온디!

소년 파수관 나는 알드라고 나는 양철복을 두드린다.

가 복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운반인 허머타면요 이리에게 죽을 편했습니다. 경첩을 다시 써서 물리지 않았죠.

나 마음은 어떤가? 난 양철복을 치면서도 걱정이 되, 주민들은 잘 대비하고 있을까? 별일은 없겠지?

운반인 이리 막는 거야 잘 하고 있죠, 뭐 하지만 약방 영감 옛 그 말라점이나 약방 영감 말이에요, 그 영감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똥똥 부러뜨렸지 뭐요, 그 영감, 재수 운 붙었지, 끝 세, 새벽녘에 잠이 깨까말까 하는데 양철복소리가 온흔히 들려오더래요, 그러자 거리에서 사람들이 외치기를 「으악 이리 떼가 물려온다」 영감 넌 나갔죠, 지붕 위로 피신 가는데요, 똥은 물리구, 위에서 금방 이리가 들 것 같겠다. 영감영감 기어올라가다 툭 떨어진 거죠.

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냐

운반인 그렇죠, 뭐, 지붕 위에서 떨어진 영감이 반둥이어야지요, 양철 복소리 들려오구 「이리 떼다」 하니까 우물 속에 빠져 죽은 아이 이이리 쪼가 똥터기요?

나 그만두게

운반인 그렇죠, 뭐 우물 속에 빠져 죽은 아이가 어디 반둥이어야죠, 수두룩하니까 똥은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 점에 똥을 지른 남자 이야기는 어때요? 똥배를 피우려구 성냥을 그었는데 들려오는 양철복소리 그 남자 영혼 들고 뛰어나가 신나게 공포 쓴 것 같아요, 허나 집에 돌아와보니 똥.....나 그만두게도!

운반인 그렇죠, 뭐, 겁 났든 남자가 어디 반둥인가요, 복소리 들려오구 「이리 떼가 물려온다」 하니까

나(악점을 내며)제발 그만뒤!

운반인 옛 그럼요? 허긴 그렇죠 뭐

나 뭐가 그렇다는 거야?

운반인 (시무룩하게) 아무것도 아녜요

나 남의 불행은 재미있어 허면 안 되네

운반인 그게 어디 남의 불행인가요? 나도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불행이죠, 뭐 점 다 내려보오니 이만 돌아가게요.

다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운반인 밤 되기 전에 가봐야겠어.

다 큰 밤이 됐요, 식사 하시구 자고 가세요.

운반인 어린 재미없는걸, 양철복 소리 들려올 때 「이리 떼가 온다」 외치면.....

나 저녁이 외치구 다니냐?

운반인 그렇죠, 뭐, 「이리 떼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반둥이어야죠, 모두들 외치는데요 지난 주 화요일 밤, 복소리 들려오서 「이리 떼다」 외치구 골목들 막 돌아서는데 똥 여자가 내 어깨에 똥 떨어디다, 떨어섯이나 입김똥 뽀개요, 두려워서 바들바들 떠는 게 꽤 예쁘거든요, 똥 돌아보나마 나 어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달라는 거죠, 마침 골목 끝에 대피용 지하실이 있어서(웃는다) 나 그게 어떻게 했니?

운반인 처음엔 개인야 줄려구만 그랬어요, 허지만 나도 시년데 어디 그럼요? 마침 지하실엔 단 두문이있겠다, 그 열 바락에 누히고 제일 중 찢죠.

나 (치미는 본노를 꼭 잡으며) 아서 기계.

운반인 인녕히 계십시오, 파수관님.

나 (다들 가리키며) 다음에 올 땐 이 에 물건을 가져 와, 방에 덮고 잘 담요가 없어.

운반인 언제 가져올까요?

나 내일 아침 담요 가지고 와.

운반인 알았어요 내일 아침 또 오죠(다에게) 잘 있우, 알랄랄 라라라.....

형원자, 빈 수레를 끌고 퇴장

다 죄나셨어요?

나 아니

다 성난 똥금인데우요?

나 아까 그 운반인 말이다, 이리 같은 놈이다, 오늘 밤에도 어두운 거리에 승었다가 똥을 재미를 누리겠지, 나의 양철복소릴 그런 놈들이 악용하고 있다니, 마음 상한다. (사이) 그만두자, 이리다가는 오늘 저녁이 삼삼해질 것 같구나, 예, 우리 식탁을 치리지 않겠니?

두 파수관은 아외용 식탁을 퍼놓는다, 짐시도 준비된다, 조그맣게 생긴 석유램프도 식탁 한가운데 놓여진다, 다가 성냥을 그어 램프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양루 위의 파수관이 소리친다.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물려온디!

다는 불을 켜지도 못하고 식탁 밑으로 숨는다, 나만 홀로 어둠 속에서 양철복을 두드린다.

가 복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나 불을 켜면

다이리 다 깎아요?

나 너 어디에 있니?

다 식탁 밑에요.

나 이리 다 깎다, 안심하고 나오너라.

다가 석유램프에 불을 붙인다, 식탁 주위가 밝아진다, 노민과 소년은 식탁에 마주앉는다.

나(요리가 든 상자)를 내(미)남(시)를 알아보겠니?
다 잊었는데요.

나 널 위해 미련했단다. 애야 용감한 사람이 되마구 약속해줄래?
다 지는 겁보예요, 잘 아시잖아요?

나 내 얼굴을 보이라. 아직도 성난 표정인 건 아마 너에 대해선지도 모르겠다. 좀 영리한 자들은
나쁜 짓만 하구 너처럼 착한 애는 겁쟁이니까 말이다. 둘 다 속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야 지금
곧 너더러 용감해지라는 건 아니. 하지만 너도 연필기는 용감한 남자가 될 수 있지 않겠니?

다 (한숨을 쉬고 나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두?

나 그럼, 처음부터 용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단다. 수천 번 두려워하다가도 단 한 번 그
두려움과 맞설 때, 그 시감을 용기있다고 부르는 거야 자, 약속해주겠니?
다 약속해요.

나 됐다. 상자의 뚜껑을 열으렴. 짐직한 뒤이었으면 좋겠구나
다 굉장히 커요!

나 반으로 자르거라. 한 묶은 저 양두 위의 파수꾼 거다. 나머지 반묶은 나와 내가 나누자.(양두
위를 향하여 외친다)식사하십시오!

가 대답이 없다.

다 양두 위에 올라가서 말삼드릴까요?

나 아니다. 저 본은 누가 양두 위에 올라오는 걸 싫어해. 음식은 그냥 놔두면 감수시고 싶을 때
죽을 내려보낸단다. 그럼 그 중에 메달아 드림 되는 거야. 사실 저녁 식사만이랑도 관계 하면 얼
마나 좋겠니. 이 석유램프 불빛이 좀 아름답구나? 그런데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저녁식사를 할
때면 이 아름다운 불빛에 비취면 얼굴이 그림더러. 애야 아서 먹으렴.

두 파수꾼들은 식사를 계속한다. 한동안 말이 없으나 시선이 마주할 때마다 호모한 미소가 떠오
른다.

나 난 네가 좋아.

다 하루 중일, 그 말은권이었어요.

나 그래도 부족한 걸 어떻게 하니?

나 아니다. 난 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그래. 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내 꿈, 나를 애대
우는 감정이란다. 이 분야의 원복판에서 난 너라는 꿈을 본다. 현실에선 보이지 않는 고결한 것.
사라진 옛날의 파수꾼들, 넌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 예전엔 많은 파수꾼들이 이 양두 아래에서
살다 죽는 걸 자랑으로 여겼지. 일생을 여기 쓸쓸한 땅에서 보내며 그저 말없이 이리 떼와 대항한
그 생애를 기뻐했단다. 그들은 지금 이 항아에 묻혀 있어. 용감한 대리석 관에 장물기보다. 한낱
갈대 아래 매장되는 걸 시내라고 생각했다. 파수꾼이란 그런 거야. 난 여기서 죽을 것이다. 너
의 두 손이 내 눈송 감길 때 난 다름을 이어줄 너에게 감사할 거다. 보이라, 저 쪽 갈대 아래 온
민 옛 파수꾼들이 모두 일어나 침묵 속에 너를 보고 있겠니? 넌 그들의 꿈이야. 이 항아의 크기와
맛있는 공기엔 네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겠니?
다 아 내가 겁보만 아니었더라면.....

나 넌 나에게 약속했다. 벌써 잊었어?
다 아뇨, 그래도 지구만 같이 나는 걸요.

나 난 너의 약속을 믿는다. 제발 기도에 어긋나지 말아라
다 네.

나 난 네가 좋아.

다 저도.....

나 내가 좋으니?

다 네

나 모처럼 즐거운 밤이구나. 구운 고기도 맛이 있고. 예, 좀더 먹지 그러니?
다 됐는데요, 이만하면.

나 (하품을 하며)오련만에 포식을 했더니 즐겁다. 잠시 눈을 붙어야겠다.(자기 양요를 덮으려다가
다들 대신 덮어주며)음치? 조금만 날 지켜주렴. 곧 제어나 나와 교대하마.

다 이 담요, 덮고 주주세요.

나 아냐, 너나 덮어. 난 습관이 돼서 견강다

다 권약에 가서 주무시지 그러세요?

나 잠시 응크리고 지면 되느니라.

파수꾼 나, 식탁에 상반신을 엮드리고 눈을 감는다.

다 이리 때가 오면 어떻게 하죠?

나 (잠에 빠지기는 좋기는 목소리로)넌 약속했지?

다 약속했어요. 하지만요, 저가 용감할 수 있을 때 이리 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나 (웃으며)네가 용감할 그때를 꼭 맞추어 와 달라우 부탁하렴.

다 하는 수 없군요.

나 부탁했니?

다 못했어요.

나 왜 하질 않구?

다 이리가 어디 들어주었어요?

나 허긴 그렇구나.

침묵 파수꾼 나는 잠들었다. 사이. 다도 꾸벅꾸벅 들기 시작한다. 램프 불빛만 남고 모든 것이
서서히 어둠 속에 묻힌다. 햇살자 후그머니 들어와서 초생달을 떴어 간다. 사이 주위가 희미하게
밝아오면 새벽. 바람 소리가 요란해진다. 파수꾼 다가가 문득 잠을 깨다. 그는 잠시 멍하니 둘러본
다. 차츰 정신이 들자 시터가 심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램프를 들고 일어나는다.

다 바람소리? 아니면 이리 때가 몰려오는 소리일까? 무서워지는데. 난 어쩌면 좋아(잠든 파수꾼
나에게 다가간다)아니, 겨울 손 없어, 좀더 주무시도록 해야지(나의 얼굴을 램프 불빛에 비춰보며)
이 주름진 얼굴, 빛깔과 바람에 거칠어진 피부, 근심 많은 눈이 잠드신 것을.....그런데 무섭다구
계온다는 건 영지없는 짓일 겁니다. 항아는 어젯밤보다 수월 해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외롭
이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쓸쓸한지 아시겠지요? 하지만요, 주무십시오 어떻게 난 견뎌보겠어요.
(잠든 나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물리나다)왜 새벽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웁까? 습발이 떨어지는 걸.

이런 때 말이, 이리 때가 와서 덩벼들면 난 공짜요이 득졌지? 빈방 한번 못하고 죽는 건 억울해. 여기 계산 파수꾼들도 당하고 말 거야. 그리고 마을의 가족들은? 그 순간 잉이여 염소들은 지금 곤란 상황 중 텐데? 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리 때 빈이 되겠다. 아, 무서워!(식탁으로 뛰어갔다) 멍청 서서)이니, 주무십시오. 난 건디졌어요(사이, 얼굴표정이 바뀌어)그래 권한 걱정을 했군. 양루 위에 파수꾼이 계시잖아. 그분은 장동지 앉았을 거야. 그분이 이리 때를 감시할 테니까 안심해도 되(양루 위에 앉혀) 양루 위의 파수꾼님, 눈을 뜨고 계시어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침묵) 양루 위의 파수꾼님, 당신마저? 당신까지 장드셨군요!나 혼자다. 눈을 뜨고 있는 건 나 혼자뿐야. 비망소리? 아니면 이리 때가 들려오는 소리일까? 아무래도 수상해. 난 어쩌면 좋지? 그래 양루 위에 올라가지. 눈을 뜨는 건 나뿐이잖아. 내가 이리 때를 감시해야지.

파수꾼 나는 양철북을 메고 양루 위로 올라간다. 기는 어느 때와 같은 부동지세. 다는 숨어뜯 듯 거의 등뒤에 서서 행아를 바라본다. 사이

다 아를다워라. 새벽의 행아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가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들려온다!

파수꾼 나는 기겁하듯 놀란다. 양루 아래로 급히 내려온다. 그는 양철북을 두드리려고 하지만 겁에 질린 듯이 멍청기만 한다. 그는 땅에 엎드린다.

가 복소리 중지! 이리 때는 들려갔다.
다 흐유티(양루 위에 향하여)이리 편 정말 다 들려갔나요? 대답해주세요(침묵) 왜 말이 없으시죠? 장드셨어요? 파수꾼님 당신은 또 장드셨군요?

파수꾼 나는 양루 위에 올라간다.

다 이리 때만 있다면 이곳엔 얼마나 평화로운 곳일까? 지행선 지 멀리 하늘가를 좀 봐. 하얀 구름이 흘러가네.
사이.

가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들려온다!

파수꾼 나는 황급히 양루 아래로 내려와 엎드린다. 그러나 어떤 의아로움이 두려움 속에서 생겨난다. 그는 양철이듯 일어나 양루 위에 올라가 시방을 바라본다.

가 이리 때다, 이리 때! 이리 때가 들려온다.

파수꾼 나는 양루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는 것과 행아를 번갈아 쳐다본다.

가 복소리 중지! 이리 때는 들려갔다.

파수꾼 나는 양루 아래로 내려온다. 심한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다 이리 때리구요? 행아 지역에는 원구를편이었어요.

간 침묵, 밝아지는 아침, 식탁 위에 석유램프 불빛은 희미해졌다. 파수꾼 나가 장에서 깨어 일어나다. 너무 잤다는 듯이 용창 놀리며 그는 침포를 쓴다. 그리고 뒤돌아서다가 양루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다를 발견한다.

나 잠

다(침없이)네.....

나 너 어디 아픈 게 아니냐?

다아노

나 널 일찍 깨우지 않고(다의 이마를 짚어보며)말이 많다. 담요를 덮지 않아서 그래. 난 권강미두 날 알아주었구나.

다 아노. 담요는 밤새껏 제 차지였어요. 새벽 무렵에야 덮어 드린걸요.

나 아무래도 너 아픈 것 같다(다의 몸을 담요로 감싸주며) 몸을 감혀라.

다 (빙지에 둔 이리 말을 들으러)이 바라보며)저 앞으로 원구를을 잠나요?

나 응? 원구를을?

다 네. 하늘의 원구를을요

나 구름을 어떻게 앞으로 잠냐?

다 그래요. 구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서 고요히 흘러만 가요. 이리 앞으로 잠을 수 없죠.

나 찻소넬 하는구나. 난. 몸을 감히고 있으면 곧 나를 거야.(말을 어깨에 짊어지고)아침이 됐으니 덩블 속도 전해졌건지. 그럼 몇 나누 오마.

다 그 앞으로는 원구를을 못 잠아요.

파수꾼 나 몇이 무거워 비뿔거리며 퇴장한다. 잠시 후, 해설자가 운반인이 되어 손수건을 끌고 등장

운반인 잘 있었니, 어린 파수꾼?

다 어서 오세요

운반인 담요 가져 왔어. 고향 파수꾼은 어디 가셨냐?

다 몇 놓으러 가셨어요.

운반인 앞지벽 앞삼대로 날이 새자마자 가져 왔는데 청찬을 못 듣게 됐군.

다 기다리시면 오실 거예요.

운반인 아니, 그냥 가이지. 어린 잠시라도 있고 싶지 않아. 너무 설화에. 양루만 솟아 있지 뭐 볼 것두 없구. 난 네 마음을 모르겠어. 어린 왜 있지? 평생 있어 봐야 그게 그거 아니냐? 양철북이나 두들기는 거밖에 더 있느냐 말이. 아까운 인생만 써야 보내는 거지. 어젯밤에 난 너를 생각했어. 너는 인생을 잡겨야 해. 어떤? 달이나지 않으려나? 이 수레에 타라구. 어디든지, 네가 가구 싶은 데로 태워다 줄게

다 어제 저녁에 말씀해주지 그랬어요. 이리가 무서워사라도 아마 난 당신의 수레에 뒹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안돼요. 타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운반인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

다 마음에 거시거든 이 편지를 손장님께 전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운반인 내용이 뭔데?

다 알릴 수 있어요.
운반인 견장이, 말 안 썼두, 도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걸 워,
다 보시면 안 돼요.
운반인 걱정 말아, 곧장 손장님께 전달 떠나니까, 그럼 잘 있어, 말할 리라라.....

행복자 회장, 시이, 파수꾼 나가 돌아온다.

나 이상식사하겠나?

다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나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네 남은 유괴기 너나 먹으렴(음식 담긴 접시를 다에게 거
져가 탁 밑에 받쳐드다) 네 얼굴이 철석하다. 잠시 아프니?

다 파수꾼님.....

나 응?

다 이리는 정말 있는 거죠?

나 오호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범 난 거구나. 요 검정이, 우리 양철복을 두드리지, 그럼 원정 두
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떼기 덜 무서워져 가야.

다 양철복을 쳐요?

나 그럼, 저는 범을 가르쳐 주마.

다 소용없어요, 그런 사실을 알았드리죠.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지번이었어요. 모두들 잠
을 잤구요, 그 틈을 노려 이리 떼기 습격했으면 어쩌나 하구 전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저는 양루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행아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 미도 이리는 없
더군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기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그럼 양해 양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 떼다」 외쳤습니다. 세 번이네요. 세 번, 저는 양루 위에서 그럼 저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
떠리근 없었어요. 흰 구름뿐이었어요.

나 예야, 난 네 말을 안다. 넌 양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구, 더구나 어린 내어
겐 이 쓸쓸한 곳이 맞잖 않는다. 그래서 넌 웃소리를 하는 거야.

다 저는 정말 양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나 그럼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경신이 아니더라, 웃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황철수철할 때
부터 난 걱정스런왔다. 제발, 이리 떼가 없다는 소린 하지도 말아라.

다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을 올라가면 이리 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요.

나 예야, 자꾸만 우기지 말아라. 나는 이 행아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시를부
엿 안 됐구. 그런데, 시를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훨 잘 안다구 그러니?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뭉려온다!

파수꾼 나는 복신 있게 양철복을 두드린다. 다는 어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당요를 벗어 내모 빈듯하게 겐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복음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묘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가 복소리 중지 이리 떼는 뭉려갔다.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보렴, 범금도 이리 떼가 오잖 않았나? 그럼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복을 쳐며 평생을 보냈겠
나? 서문하다. 아무리 아픈 메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죄송해요, 하지만 아쩨 그 많은 나뭇을 난 한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나 넌 그렇게도 우심나, 이리가?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습기라도 했으니깐요. 명예 얻드리
면 어느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명예 얻드려야 아무 소용없구요. 양철복도 습
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을 믿고 싶어요.

헤철지, 손장이 되어 동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겸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운 음성으로 말한다.

손장 수고하십니까, 파수꾼님.

나 아, 손장님. 어린 현왕이십니까?

손장 추억을 더듬으려 왔습니다. 이 행아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말기를 따려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런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똬이 깔려 있고 양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태도 어
린 난 똬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똬기똬인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
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게 이곳엔 찾아온 거예요.

나 잘 오셨습시다, 손장님.

손장 오래 범지 못했더니 그 동안 흰 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손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손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쳐어 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손장 저쪽요, 저쪽, 철계 냇물 밑이던가요.....

나 드디어 잠은군요!

파수꾼 나 회장, 손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손장 이것 떼가 보낸 거니?

다 네, 손장님

손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 온 운반인이 도중
에서 뛰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구름존」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던
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물러올 거야. 물론 네 빛은 아니다. 넌 나 운반인을 요달리구 하
지 않았나? 물러오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불침묵이지. 더구나 어린 사랑은 도개까지 들고 온다더
라.

다 도끼를 왜 들고 왔요?

손장 양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구름존」 이것이 구호처럼 외치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똬기라도 따러가고 싶다. 난 어디에 똬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핏말 밑엔 으리 잘 익은 똬기가 가득해단다.

다 손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손장 었는 걸 왜 무서워하셨니?

다 손장님도 이시는군요?

손장 난 알고 있지.

다 이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랑들에게, 저 잊을 보리간 파수관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손장 잊었는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손장님! 입장을 이 상상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랑들도 그렇죠! '이리 먼가 물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손장 예야, 이리 때는 처음부터 없었다. 었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랑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음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절서를 만든 거야. 절서, 그게 먼저 넌 알거나 하니? 오를 거야, 너는. 그런 마음은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응직한 파수관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숲모 었는 것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입생이 그저 헛된다고만 할 수 없어. 그는 모든 사랑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버린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정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관은 늘도록 헛북이나 천 것이 되구, 마음의 절서는 무너져버린다. 예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내가 헛된 것을 했어요? 제가 본 원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럼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큰 마음사랑들이 온다죠? 잠깐요. 저는 양무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손장 뭐라구? (잠시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향아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음엔 가서 울타리를 두들다. 양무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음 사랑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됨이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손장님, 저와 같이 양무 위에 올라가요. 그러구 함께 외치세요.

손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젠 됐어요!

손장(은웃말처럼)그러나 잠깐까? 원구름, 허공에 온 그것만 가지구 마음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말씀하시죠?

손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인성이 안 와서 그래.(은화한 얼굴에서 허가 났을 나았다가 돌아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깨까지 들구 온다잖니? 양무를 무슨 다음인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널 죽이려구 엄빔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랑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원구름의 첫날 사랑이 벌어진다.

다 사랑이라구요?

손장 그래, 사랑이지. (난독하게) 생각해보렴, 도깨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생긔듯 흘러내릴 거다. 공력해, 예,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런!

손장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음 사랑들에게 이리 때를 만들었어. 그럼 알려줘야 해. 그럼 그들도 널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장 허나 내가 말할 힘이 었다. 사랑들이 오면, 난 원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

끼를 휘두를 터구, 그럼 나는, 나는.....(은밀한 목소리로) 예, 네가 본 그 원구름 있었니, 그런 내 입이엔 사라지고 었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손장 그것 보, 넌 내 피를 보구 싶은 거야. 터구나 더 나쁜 건 넌 원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 입이런 번갈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장백해지며) 그런, 그런 아니에요!

손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피로워하는 파수관 다들 깨안으며)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원구름이라 외칠 터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손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손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관 나가 돌아온다.

나 또, 헛치었습니다. 이리는 뭐냐 교환해서요, 천 것 같아도 가보면 몰아나구 없어요.

손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만질을 손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손장 받은 거나 다음일이 감사합니다.

나(손장에게 안겨 었는 다들 가리키며) 그 엔 지금 역시 아름답다.

손장 네, 었이 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손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번씩은 었는 병이었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다에게) 예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고마워요.

나(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울짓 놀리며) 먼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오죠?

손장 마음 사랑들이지요.

나 마음 사랑들요?

손장(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예가 그 앓을 깨면 파수관입니다. 저기 방긔 웃고 었는 식량 운반인, 이 예가 불림었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때인지 아니면 원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물어봅시다.

파수관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양무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예야, 괜찮겠니?

다.....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양무 위에 올라가서 었드려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나.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나 자신이 파수관이라는 걸 잊진 자랑해야 한다. 말이지, 응?

파수꾼 나는 일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떠다, 이리 떠! 이리 떠! 올라온다!

파수꾼 거의 손이 번쩍 들러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팔뚝을 두드린다. 복소리, 한동안 계속 된다.

가 복소리 정지! 이리 떠는 물러갔다.

손장 주인여러분! 이것으로 전상은 밝혀드립니다. 친구들은 있으며 이리 떠입니다. 이 양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팔뚝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이리의 승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기시거든 마음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은반인의 처벌을 논의하십시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떠가 여러분을 돌아볼까요 올시다.

양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가 내려온다.

나 난 네가 이렇게 웅장해질 줄은 몰랐구나.

손장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나 아니,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난 나에게 웅장한 사람이 되마구 약속하잖 않았니? 난 그 때 이미 알아본 거야. 난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손장 예, 난 좀 보자(만났던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난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넌?

손장 마음엔 오지 않아라.

다 (음목)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손장 난 저 사람들이 싶어, 내 마음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 있다. 난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손장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손장.....이런하다.

손장 그림, 잘 있거라.

나 가시려구요, 손장님?

손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제가 저만큼 비껴다 드리지요, 잊도 좀 심퍼블 겸 해서요.(양개 걸이기에) 그런데 있습니다. 양 팔뚝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손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소리가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양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떠다!」 외친다. 파수꾼 나는 조용히 양팔뚝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막